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1 년 1/4 분기)

2021 년 3 월 25 일

도미니카공화국 복음화를 위해 늘 중보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와 협력하며 함께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온 지 벌써 25 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현지 교단과 함께 선교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현지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섬긴다는 것을 현지 교회가 인식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가 제 99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장학위원회 소식입니다.

2020 년에 시작된 Covid-19 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총회장학위원회(위원장: 장은경 선교사, 부위원장: 넬슨 로드리게즈
목사, 서기: 마리아 보꾸 목사) 사역이 요동함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학
혜택을 받는 총 55 명의 장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총회에 속한 전국교회에도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초등학생으로부터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로 구성된 장학생들의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장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 소식과 함께 2020 년 성탄절 전후로 쓴
장학생들의 감사편지를 첨부합니다. 이 장학생들이 도미니카공화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교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서 사회의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회장학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장학위원회 장학생 후원교회 및 후원자**

교회: 남가주소망교회, 리치몬드한인중앙장로교회, 샬롯즈빌한인교회, 서머나교회, 수원온누리교회, 스타튼아일랜드연합장로교회, 앤아버한인교회, 에셀교회, 연동교회, 영진교회(가나다 순)

개인: 김성대 집사, 이육자 권사, 장호경 집사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제 99 회 총회가 2 월 12 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의 제 99 회 총회가 2021 년 2 월 12 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1 월 셋째 주간에 4 일 동안 개최되었던 총회가 금년에는 COVID-19 로 인해 3 주간 뒤로 미뤄진 가운데 하루에 온라인 줌 플랫폼(zoom platform)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장: 비전, 하나됨과 약속”(Creciendo en Todo: Visión, Unidad y compromiso) 이라는 주제로 모인 금 번 총회는 총회 본부 사무실과 각 노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총대들이 흠어져서 참여하거나, 총대 개인이 줌에 접속하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사정과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총회장: 후안 데 디오스 까라바조 목사, 총회장: 싸이리 마르떼스 목사, 총회 총무: 미겔 앙헬 깐꾸 목사,
총회 회계: 신평 베르나베 장로(왼쪽으로 부터)

총회주일학교 교재 5 권 집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재 집필위원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집필진들과,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교재 집필 사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재집필위원회(위원장: 장은경 선교사, 총무: 피게로아 베따니아 목사)는 교재 5 권(주안장로교회 후원) 마무리와 6 권의 집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회 스페인어 찬송가(개정 3쇄)가 성도들에게 잘 반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을 위해 연동교회 후원으로 한국장로교출판사를 통해 스페인어 찬송가 개정 3쇄가 잘 인쇄되었고, 지난 1월 선적되어 지난 주에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까우 세도우 항구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세관을 통관하여 총회 사무실까지, 그리고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잘 반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가는 2004년 총회찬송가편찬위원회(위원장: 장은경 선교사, 총무: 헤르손 데 라 크루즈 목사)를 통해서 초판이 인쇄된 후 지금까지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서 공적 예배 시간에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19라는 큰 파도 가운데서도 파도를 헤쳐가면서 도미니카공화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과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김종성 목사, 장은경 선교사 드림